

2 뉴스

# 외대 전과 내규 논의 전출 인원 축소 제안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외국어대학(외대)이 타 단과대학으로 전과하는 학생 수와 관련하여 내규(안)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대학의 전과 및 전출인원 허용범위는 학칙 제8장 23조와 전과시행세칙 제4조 1항에 의해 입학정원 20% 내에서 가능하지만, 예외조항으로 학과(부) 내규로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외대의 경우 제안된 비율은 10%인 것으로 파악된다.

외대의 전과 내규 제안 배경은 현재 상당 수준의 전출 인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에 외대는 국제캠퍼스 단과대 중 가장 많은 전과 학생 수를 기록했다. 올해 외대에서 타 단과대로 전과한 학생 수는 59명이다. 이는 작년 14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타 단과대에서 외대로 전입한 학생이 작년 12명, 올해 8명인 것과 대비된다.

우리신문이 입수한 외대 운영위원회록에 따르면, 외대 관계자는 “기존 재학생에게 돌아가는 피해의 정도와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은 전출 비율이 누적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다”며 “단과대와 교수진은 10%로 내규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는 단순히 단과대에서 소속 학생에 대해 전과를 막는 것이 아닌, 외대 학생을 보호하고 커리큘럼과 교육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된 전과 내규(안)가 외대 학생대표단에게 전달된 시기는 지난 6월이었다. 이후 ▲적용 시기 ▲학기, 학년별 전과 인원 비율 ▲전과 및 전출 범위에 대한 학생 대표들의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월에는 외대 학생대표단과 외대학장, 부학장이 참여한 회의가 진행됐으며 10%로 제정된 전과 인원 범위를 11%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과의 경우 전과 및 전출 인원을 10% 내로 제한할 시 전출 가능 인원이 소수점에서 절사되기 때문이다.

외대 전과 내규(안)에 대해 외대 박수빈(스페인어학 2018) 학생회장은 “전과 내규(안)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일 뿐 확정된 사항은 없어 관련하여 답변할 수 있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외대 관계자는 “전과 내규 신설은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학장, 부학장, 외대 학생회장, 외대 7개 학과 학생회장이 모여 외대 전과 내규를 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이 논의의 결과, 일차 의견접근을 이룬 것은 양 캠퍼스 간, 각 캠퍼스 내, 학과 간 전과 비율 현행 20%를 외대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10%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논의 단계이고, 양 캠퍼스 교무처장, 부총장, 입학처장 등 학교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했다.



학교 앞 골목의 불법주차로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서세종기자)

## 심화되는 영통 불법주차

서세종 기자 sejong0362@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정문 건너편 골목의 불법주차가 심해지고 있다. 불법주정차가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조치가 요구된다.

국제캠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맥도날드 뒷골목(영통동 1077, 영일로6번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발견됐다. 실제로 영일로6번

길은 주요 상권이 위치했으나 도로 폭이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만성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영통구청 교통지도팀 단속요원 심상두씨는 “해당 구간은 이중주차와 횡단보도 점유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저녁 시간에는 불법주차가 더욱 기승을 부려 도로 전체가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했다. 이중주차로 차량들의 중앙선 침범이 빈번했고 불법 주차된 차량이 횡단보도를 점유하면서 보행자들은 길을 살피기도 어려웠다. 불법 주정차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만큼 영통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박재영(국제학 2017)씨는 “정문 건너편 뒷골목을 건널 때마다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된 차들로 인

해 길을 살피기 어렵다”며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운전자들 또한 불편을 호소했다. 운전자 A 씨는 “횡단보도 주변에 이중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날 것 같아 불안하다”고 전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영통구청 측은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이도영 팀장은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정형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고정형 CCTV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 기숙사 실내 흡연 발생...행정실 “즉시 퇴사될 수도”

장혜림 기자 vicky21524@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기숙사 실내 흡연으로 학생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제캠 우정원 사감실에 따르면, 2021학년도에 접수된 학생 간접흡연 신고는 총 19건이었으며 그중 12건이 적발돼 규정에 따라 조치됐다. 신입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제2기숙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2기숙사는 올해 17건의 흡연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그중 13건을 적발했다.

흡연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자 우정원은 지난달 3일 금연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우정원 사감실은 안내문을 게시한 배경에 대해 “지속적인 담배냄새와 연기로 입사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며 “건물 내 흡연을 근절하고, 실내 흡연의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안내문을 게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2학기부터 우정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승준(사회기반시스템공학 2020) 씨는 “방을 나와 걸어가면 1, 2주에 한 번은 담배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며 “담배의 독한 향이 느껴져 불쾌감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흡연 여부와는 별개로 담배 냄새는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학교 차원에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제캠 기숙사(제2기숙사·우정원)는 “흡연 관련 벌점은 징계 퇴사 점수에 못 미치는 8점이지만 흡연 사실이 확인된 학생이 보이는 태도에 따라 즉시 퇴사도 가능하다”며 “적발 후 선처를 구하는 학생이 많을 뿐더러 1차 적발자 중 2

차 적발로 징계퇴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10%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어 1차 경고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건물 내 흡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상황에 따라 상·벌점 기준을 바꾸고 있다”며 “2022년 1학기 흡연 벌점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캠의 제2기숙사와 우정원은 정기적인 순찰을 돌고, 층별 생활 멘토 즉각 신고 체제를 운영해 기숙사 내 흡연을 단속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감실 근무자, 생활조

교 및 멘토, 경비반장들이 의심 구역을 확인해 조치하는 식이다. 또한 기숙사는 “흡연 의심 호실 리스트를 만들어 순찰 시 참고하거나, 신고 접수 시 의심 호실부터 순찰하는 방법으로 적발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정원 행정실장은 “날이 추워지면서 외부 흡연구역을 이용하지 않고 호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른 학생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